

◎ 교회목표 ◎

1. 천국시민 양성
2. 만민에게 전도
3. 빈약한 자 구제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요한복음 11장 40절)

순례자

◎ 1997년도 표어 ◎

"화평케 하시는 그리스도"(엡2:4)

◎ 생활지침 ◎

1. 하나님과 화평을 이루자
2. 그리스도의 평화를 나눈다
3. 성령이 주시는 화평의 열매를 맺자

발행인: 이종윤 발행처: 대한예수교 장로회 서울교회 서울시 서초구 반포동 737-3 전화 (02) 517-7651 ~ 5 팩스 (02) 512-1225

사순절 시작

주님을 묵상하고 고난에 동참하자

2월 12일에 시작하여 부활절인 3월 30일 전날까지
자기 부정과 이웃 사랑을 실천하는 기간으로 삼아야

사순절(四旬節)은 부활절 이전 여섯 주에서 주일을 제외한 40일간의 기간을 말한다. 그래서 사순절의 첫날은 항상 수요일로 시작되며 전통적으로는 이 날을 '재의 수요일' 혹은 '성회 수요일(Ash Wednesday)'이라고 부른다.

3월 마지막 주일인 30일에 부활절을 맞는 올해의 사순절은 오는 수요일인 12일에 시작한다.

사순절은 부활절을 앞두고 예수님의 발자취와 십자가 고난을 묵상하며 참회하는 기간이다. 또한 근신과 자기 절제와 경건의 생활에 더욱 힘쓰는 영적인 훈련의 기간이기도 하다. 예수님과 함께 고난과 죽음에 동참하겠다는 각오를 새로이 하고 이 세상을 사는 동안 부단히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는 삶을 살기로 결심하는 것이다.

사순절은 앵글로 색슨의 '봄'이란 의미의 렌넨(Lenen)에서 왔다. 그리고 '40'에는 여러가지 의미가 있는데 예수님께서 광야에서 40일간 금식하신 것, 모세가 시내산에서 40일간 하나님과 함께 한 것, 예수님의 부활에서 승천까지의 기간이 40일이었던 것 등을 들 수 있다.

중세기 교회들은 사순절을 회개의 절기로

삼았는데 종교개혁자들이 이를 그대로 받아 사순절 기도문의 주제를 '회개'로 삼았다.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르는 삶을 훈련하는 이 기간에는 정해진 시간에 성경을 읽고 묵상하는 시간을 가지며, 특별한 기간 금식을 한다든지 기호식품을 절제함으로써 자신을 죽이는 훈련을 할 수 있다. 특별히 십자가와 구원의 은총을 전하는 전도 사역에 더욱 열심을 내는 기간이 기도 하다.

그리고 금식이나 절제를 통해 모은 것은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고 하신 주님의 교훈을 따라 이웃을 위해 선하게 사용하도록 한다.

십자가 뿐만 아니라 탄생과 성장과정, 생애의 모든 것이 고난으로 점철되었던 예수님을 본받아 살려하는 순례자라면 마땅히 예수님의 섬김과 희생의 정신을 본받아야 할 것이다.

예수님의 고난에 동참하려는 성숙한 신자는 이웃을 사랑할 수 있어야 하는 데 우리가 할 수 있는 가장 큰 사랑은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에게 십자가를 전하여 구원을 얻도록 하는 일이다. 예수님의 부활에 동참할 자로서 고난도 함께 하려는 우리의 경건한 생활이 실재화 되기 위해서는 각자의 회개와 근신과 새



로운 결단이 밟지 않는 자들에게 나아가 구속과 부활의 참뜻을 증거하는 것으로 연결되어야 할 것이다.

우리 교회는 각 교회학교를 통해 주님을 깊이 생각하는 기회를 갖고 주님을 더욱 닮아가는 삶을 배우게 된다. 특별히 고난주간의 성금요일에는 예수님의 십자가 상에서의 죽음과 구속의 사역을 묵상하며 온 교회가 해 있는 동안 금식하는 날로 선포하기도 한다. 부활절에 행하는 성찬식을 준비하며 많은 사람이 세례를 받는 기간이기도 하다.

참회와 근신과 경건의 훈련으로 회개의 절기인 사순절을 지냄으로써 의미있는 부활절을 맞을 준비를 하자.

학습 · 세례식

학습 · 세례자는 반드시 교육에 참가해야

2월 학습 · 세례식이 19일(수) I · II부 예배시 거행된다. 이를 위한 교육은 17일(월), 문답은 18일(화) 오후 7시에 각각 실시된다.

단 17일 교육에 참석하기 어려운 성도를 위해 학습자인 경우 9일(주일), 세례자인 경우 16일(주일) 새가족부에서 별도의 교육을 실시하는데 학습 · 세례자는 반드시 교육에 참가해야만 문답과 학습 · 세례식에 참여할 수 있게 된다.

상반기 장학생 선발

16일(주일)까지 사무국에 신청

천국일꾼 양성을 목표로 하는 장학위원회(위원장:윤봉준장로)에서는 1997년도 상반기 장학생을 선발한다. 우리 교회에서는 학업성적이 우수하고 신앙생활에 모범이 되는 교회 내의 학생과 지역사회 극빈자 가정의 학생, 농어촌 자매교회 목회자 자녀들에게 일년에 두 차례 장학금을 수여하고 있다.

장학금 신청은 2월 16일(주일)까지 접수하며 신청서는 사무국에 비치되어 있다. 문의는

교구담당 목사나 해당 교회학교 지도교역자에게 하면 된다.

대학부수련회 내일부터 "화평케 하시는 그리스도" 주제로

대학부 겨울수련회가 10일(월)부터 12일(수)까지 3일간 교회에서 열린다.

'화평케 하시는 그리스도'라는 주제로 열리는 이번 수련회의 강사는 원호 목사이다. 대학부수련회에서는 침묵의 방, 상큼한 시간, 특강 등의 프로그램을 진행할 예정이다.

창세기 강해



“애굽에서의 변영”

(창세기 47장 27절)

이종윤 목사

요셉이 7년간 기근을 지혜롭게 넘긴 이야기를 마치고 다시 야곱의 가족에 대한 이야기로 돌아옵니다. 27절은 별로 중요치 않은 것처럼 보이나 매우 중요한 교훈이 그 가운데 있습니다.

1. 하나님께서는 자기 백성을 돌아보신다

요셉은 7년 흉년 동안 애굽인들을 다루는 가운데 애굽인들은 기근을 넘길 수가 있었고 이스라엘 사람들도 같은 기간을 자유인으로 지냈습니다. 애굽인들은 바로에게 자기들 토지를 빼앗겼고 히브리인들은 산업을 얻고 생육하고 번성했습니다. 그후 이들의 수가 급증하므로 요셉을 알지 못하는 바로는 히브리 남자 아이들을 살육하기까지 했습니다(출1장). 야곱이 애굽에 와서 죽기까지 산 기간은 17년입니다. 처음엔 70명이었던 수가 270명이 되었고 이런 증가율에 따르면 430년 후 출애굽할 때의 이스라엘 백성의 수는 수백만에 달한다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원수들 틈에 살고 있는 하나님의 백성을 하나님께서 지키신다는 진리를 여기서 배울 수 있습니다. 우리도 이세상 세속의 물결 속에 살면서 많은 역경도 있지만 자유와 기쁨과 감사가 넘치는 삶을 살 수 있는 것은 모두 하나님의 돌보심 때문입니다.

2. 생육하고 번성하였더라

“생육하고 번성하였더라” 하는 말은 창세기 속에 12번 나타납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을 만드시고 창조질서를 위해 주신 이 명령은 인간의 타락 이후에도 계속되었습니다. 그러나 인간 세계에 죄가 들어온 후 이상하게도 이 말씀은 회방을 받았습니다. 인간의 수는 증가되었으나 그 문화는 불경으로 가득차게 되었습니다. 또한 인간의 지배를 받는 모든 피조물이 타락한 인간에 의해 잘못 사용되거나 인간이 피조물을 예배하는 이상한 현상이 벌어지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범죄한 후엔 셋의 후예(경건한 자)보다 가인의 후예가 더 창성했습니다. 노아 시대에도 오직 8명만 경건한 자로 방주에 들어갔습니다. 사탄이 이 세상을 지배하게 되었고 하나님의 백성은 지상에서 점차 사라지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너를 번성케 하겠다”고 하셨습니다. 이 말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먼저 주신 말씀입니다(창17:2, 6). 그리고 아브라함이 이스마엘에게도 같은 말을 했습니다(20절).

아브람(father of many)은 86세에 이스마엘을 하갈의 몸을 통해 얻었습니다. 아브라함과 사라의 이 아이가 하나님의 약속된 아들이라 믿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다른 계획을 가지고 계셨습니다. 99세된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은 다시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그의 이름을 비로소 아브라함(father of a great multitude of people)으로 바꿔 주셨습니다. 이삭을 낳은 후에도 그는 한 아들의 아버지일뿐 열국의 아버지는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창대케 되리라는 말씀을 믿었습니다.

이삭도 하나님으로부터 자녀가 하늘의 별과 같이 창대케 되리라는 약속을 받았습니다(창26:4). 이삭 역시 하나님의 약속을 믿었습니다. 그래서 야곱을 하란으로 떠나 보낼 때 축복기도를 하면서(창27:3) 창대케 되리라고 하였습니다.

야곱이 베엘에 이르렀을 때 하나님께서는 “네 자손이 동서남북 사방에 퍼지리라”(창28:14) 하셨습니다. 야곱이 20년 후 다시 베엘에 왔을 때 “나는 창대케 하는 전능자 하나님이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셨습니다(창35:11). 애굽에 와서 야곱은 이 일을 상기했습니다(창45:3-4). 야곱은 이미 오랜 옛날 이야기가 되어 버린 하나님의 언약을 여전히 믿고 있었던 것입니다. 야곱은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변영의 복을 주셨다고 믿었습니다.

창세기 47장 27절에서 이 언약의 첫번째 성취를 볼 수 있습니다. 애굽에 그들이 있는 동안 약속의 땅을 정복하고 소유하기에 충분한 숫자로 증대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자녀들을 이토록 창대케 하십니다(창47:27). 그러나 약속의 성취는 연기되기도 합니다. 다만 하나님의 백성은 그 수가 증가될 것이 틀림없습니다. 가나안 땅에서 족장들이 215년 사는 동안 겨우 백여명의 가족뿐이었습니다. 아주 정상적인 환경이었습니다. 그러나 애굽에서는 아주 나쁜 조

건하에서도 거의 200만으로 증가되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수적인 성장만이 아니고 영적 성장도 볼 수 있습니다. 고난과 성장은 반비례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함께 있습니다. 한국교회가 물질적인 번영을 구사하면서 성장은 둔화되고 있습니다. 우리가 너무나 물질에 매여있지 않은지 반성해야하겠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면서 이득을 얻으려 하기보다 값비싼 대가를 지불할 각오를 해야 합니다. 우리 선조들은 그렇게 믿고 또 그렇게 살았습니다. 그때는 교회가 부흥하고 주의 백성이 증가했습니다. 이제 우리는 하나님께서 한국교회를 사랑하신다면 왜 우리에게 고난을 주시지 않는가 하는 물음을 물어야 할 것입니다. 그래야 우리의 믿음이 강해지고 그리스도와 우리의 관계는 더 깊어질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고난을 당하여 약해질 때 하나님의 강하신이 온전히 나타나고 마른 땅에 뿌리를 내리듯 경건이 더욱 확고해지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 순례자 컬럼 ✧

“믿음의 힘”

믿음의 능력은 다이아몬드와 같이 폭발시키는 힘이 있다. 성경에 가득히 담겨있는 믿음으로 산 사람들의 행적을 더듬어 보면 믿음으로 홍해도 건넜고, 여리고 성도 무너뜨렸으며, 불치의 병도 고쳤고, 성난 파도도 잔잔케 했고, 죽은 자를 살리기도 했다.

믿음의 힘은 이와같이 가치 가공할 만한 파괴력과 창조력을 가졌기 때문에 사용하기만 하면 개인과 가정은 물론 국가 인류 사회에 엄청난 축복이 되지만 잘못 사용할 경우 도리어 큰 화가 미칠 것이다. 마치 총을 다룰 수 있는 기술이 없는 자가 총과 탄약을 함께 갖게 되면 오발사고를 낼 수밖에 없듯이 믿음의 힘은 강한 것이지만 그 힘을 우리의 삶에 적용할 수 있는 준비가 없을 경우 교회는 물론 가정과 사회를 어지럽히는 경우가 생긴다.

한국교회가 좋은 믿음의 유산을 가진 것만 자랑치 말고 이제는 성숙한 신자로서 그 믿음을 바르게 활용할 수 있도록 우리 함께 기도하자.

우리 부서 소개

바울 제 6선교회

예수님께서는
믿는 자들에게 “가라”고 말씀하시고
잃어버린 자들에게 “오라”고 말씀하신다.

김형택(집사, 바울 6선교회 회장)

성경은 그리스도인들에게 “가서 전하라”고 명령한다. 지상명령은 바로 그것에 관한 것이다. 그러므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세상이 우리에게 다가와서 그리스도에 대해서 묻기까지 기다려서는 안된다. 우리는 복음을 전하는 데 있어서 우선권을 정해야 한다. 예수님께서는 믿는 자들에게 “가라”고 말씀하시기 때문이다.

그러나 예수님은 또한 잃어버린 세상에게 “오라”고 말씀하신다. 예수님에 대해 알기 원하는 사람 두 명이 그에게 와서 물어보았을 때 그분은 “와 보라”(요1:39)고 말씀하셨다. 마태복음 11장 28절에서 예수님은 구도자들에게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고 하시고 축제 마지막 날에 예수님께서도 또한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셔라”(요7:37)고 외치셨다.

“가서 전하라”와 “와 보라”는 말씀은 둘 다 신약에서 발견된다. 누가복음 14장에서 예수께서 하나님 나라를 큰 잔치에 비교하셨을 때 주인의 종들은 ‘나가서’ 배고픈 자들에게 ‘와서’ 먹으라고 초청하여 “내 집을 채우라”고 명령 받았다.

우리는 ‘가는 것’과 ‘오는 것’의 문제에 있어서 선택할 필요는 없다. 그것은 둘 다 전도의 합당한 방법이기 때문이다. 어떤 사람들은 교회로 이끌려 와서 전도를 받을 것이고 어떤 사람들은 있는 곳에서 전도를 받을 것이다. 균형 잡히고 건강한 교회는 이 둘 다를 위한 기회와 행사를 마련해야 한다.

바울 6선교회는 모임 때마다 이러한 원리를 적용하기로 하고 새로운 한 해를 다짐했다. 지난 1월 모임 때는 신순우 집사 가정에서 30여명 식구들이 모여 사랑의 교제와 친교를 나누며 교회를 위해 기도했다. 물론 우리의 자그마한 결단과 시작이 우리 교회에 어떤 큰 힘이 될지는 아직 알 수 없지만 최선을 다하는 곳에 하나님의 역사가 분명히 있으리라고 확신한다.

우리는 벌써 그 기쁨을 맛보고 있다. 서로 웃고 즐기는 사이에 우리 공동체는 하나가 되는 기쁨을 맛보았다. 아마 다음 모임에는 더 많은 형제들이 참석할 것이다. 우리는 많은 연령대의 동료들에게 ‘와 보라’고 말하지만 우리의 핵심 멤버들에게 ‘가서 전하자’고 한다.

창세기강해 공부를 마치고 ①

“새로운 눈이 열렸습니다”

김영근(인천 경인감리교회 권사)

천지를 창조하신 후 “심히 좋았더라”라고 하신 하나님께서 서울교회 수요일예배 강단을 통해 선포되던 창세기 강해가 은혜롭게 마무리된 것을 보시고 “심히 좋았더라”라고 하실 줄 믿습니다.

저는 인천 경인감리교회 권사입니다. 그동안 회사일이 바빠다는 핑계로 교회활동을 접어두고 형식적으로 왔다갔다하는 부끄럽기 짝이 없는 신앙인이었습니다. 그런데 삼년 몇개월 전, 저희 회사 상사인 탁경준 집사님께서 매주 빠지지 않고 정성을 다해 교회 신문과 주보, 설교 테이프를 전해 주셨습니다. 그것을 통해 공부하는 가운데 특별히 창세기 강해를 들으며 저는 말씀의 오묘한 뜻을 이해하면서 비로소 신앙생활에 눈이 뜨이고 진리의 말씀이 얼마나 위대하고 감당기 어려운 심오함을 가졌는지 발견의 기쁨과 감사로 날마다 충만한 믿음의 생활이 새롭게 시작되었습니다.

저는 저희교회 속회 모임을 인도하고 있는데 서울교회 유인물과 설교 테이프를 얻은 많은 교훈들이 얼마나 큰 힘이 되고 있는지 모릅니다. 저는 창세기에서 많은 계시의 말씀과 믿는 자의 자세, 그리고 세상을 살아갈 가치관 등을 얻었습니다.

그간 제가 테이프로나마 공부해 온 창세기 강해를 통해 얻은 교훈을 정리하여 성도님들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첫째, 천지창조의 기원과 만드신 순서가 중복되는 부분을 준비단계와 완성단계로 구분함으로써 확실한 이해를 하였으며 불신자에게도 이해시키는 하나님의 무기

가 되었습니다.

둘째, 하나님의 절대적 주권에 의해 인간을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드셨는데 왜 끝까지 하나님처럼 위대한 사람으로 지키시지 불확실한 자기 의지로 타락한 죄인이 되게 하셨을까 하는 부정적인 생각과 의문 투성이였는데 창세기 강해를 통해 하나님께서 인간을 사랑하시고 희생하시어 친히 인간을 구원하셨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셋째, 선택받은 이스라엘 민족을 통하여 하나의 본(model)을 제시하시고 인류에게 구원의 길을 보이시며 복음 전하기를 명하셨으나 아직도 계속하여 죄를 짓는 인간을 지금도 용서해 주시고 참고 기다리고 계시는 하나님의 섭리를 알았습니다.

창세기 총 50장의 긴 본문과 수많은 이야기의 열쇠는 그리스도였습니다. 모든 초점을 그리스도께 맞추고 성경을 볼 때 태초부터 지금 우리의 모습까지가 일직선으로 그어지는 길을 볼 수 있었습니다. 태초를 창조하신 하나님의 많은 비밀이 그리스도를 통해 계시되었으며 그리스도가 없이는 모든 것이 헛되고 무의미하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창세기 강해를 통해 받은 말씀의 은혜를 감사하면서 말씀의 권위를 인정하고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모시고 경외하는 서울교회 성도님들로 인해 한국교회가 하나되어 주님 기뻐하시는 큰 역사가 일어나길 기도합니다.

창세기 강해 공부를 마치고 ②

“추억에 잠겨...”

성기원(청년부)

“태초에”로 시작한 창세기 공부 “애굽에서 죽은 요셉”으로 그 대단원의 막을 내렸다. 지난 주 수요일예배 시간에 목사님의 ‘3년 9개월동안’이라는 말씀을 들으며 형언할 수 없는 기쁨과 가슴 벅차오름을 느끼면서 몇 주 전부터 창세기 50장 26절 마지막 말씀을 듣지 못하면 어떡하나 걱정하던 나의 모습을 떠올려 보았다. 그리고 내 방 책꽂이에 나란히 꽂혀 있는 설교

노트를 들추어보며 시간의 흐름을 실감할 수 있었다. 창세기 강해를 들으며 보낸 3년 9개월은 빨리 지나버렸다기 보다는 성경 한 구절 한 구절을 짚어가며 웃기도 하고 울기도 했던 아름다운기억들로 가득 채워져서인지 태초로부터 요셉이 잠든 그 긴 세월을 나도 함께 살아온듯한 기분이 든다. 결국 창세기 공부를 통해 3년 9개월

4면에 계속

3면에서 계속

이 아니라 수 천년 아니 수 만년을 벌게 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와 찬송을 돌린다.

주일이 돌아오면 주보를 받아들이고 이번 주 수요일예배의 본문 말씀과 설교제목을 확인하는 것이 나에게 하나의 즐거움이였다. 본문 말씀이 길면 긴대로 짧으면 짧은대로 그 안에는 너무나 많은 비밀들이 숨어 있었고 한 주도 빠짐없이 나를 향하여 들려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었다. 천지창조와 아담과 하와 에덴동산의 이야기는 마냥 신기하고 재미있고 새로왔으며, 아담과 하와의 범죄로부터 노아까지 계속되는 인간의 악함을 보면서 매주 눈물을 흘리며 가슴을 치는 회개의 기도를 드렸던 순간들도 기억난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으로부터 나의 하나님을 발견하며 기뻐하고 감사하였고 가장 최근(?)이러서 그런지 요셉에 관한 말씀은 아직도 생생하게 귓전에 남아있다. 요셉은 그리스도의 표본이며 성도의 모델이라고 한다. 요셉은 너무나 오래 전에 살았던 사람이지만 나에게 아주 가까운 친구같이 느껴진다. 말씀을 통하여 요셉에게서 그리스도의 모습을 볼 수 있었고 진정한 성도의 모습 또한 만날 수 있었다. 꿈꾸는 요셉으로, 옛날 이야기의 주인공으로 알고 있던 요셉은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여 지금 내가 살고 있는 이 세대를 함께 살며 내 옆에서 그 모습을 보여주는 내 이웃이 된 것이다.

이제는 창세기를 열어 보면 어느 한 군데 그냥 지나칠 수가 없을 것 같다. 주일 예배나 찬양예배 시간에 목사님께서 요셉의 예를 드시거나 기도에 인용하실 때 성경 속의 요셉이 떠오르면서 깊은 기도를 하게 된다.

3년 9개월동안 불가피하게 수요일예배에 빠진 적도 있지만 그래도 이만큼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여건과 환경을 만들어 주시고 나의 등을 떠밀어 주시며 도와주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린다. 나는 벌써 앞으로 수요일예배 시간엔 어떤 성경본문이 강해될 지 기대하고 있다. 아직은 청년의 때이지만 감히 나의 후배(?)들에게 하고 싶은 말이 있다. 새롭게 시작될 강해설교와 함께 계속될 수요일예배에 동참하여 삶의 곤고함과 항상 부족을 느끼는 우리 심령의 갈함을 말씀으로 풍성하게 채우는 삶이 되자고.

■ 목회자·교우동정 ■

* 이종윤 목사는 11일(화) 서울여대 이사회에 참석, 13일(수) 서초구청 신우회에서 말씀선포, 14일(금) 기독교교도소추진위원회 소집.

* 김병호 집사·김현주 성도(1교구 논현 5다락방)은 2일(주일) 득남.

■ 이종윤 목사 방송설교 ■

기독교방송(HLKY 837KHz) 「성서강해」 화요일 오전 5시 35분 ~ 6시
 춘천기독교방송(HLDC 93.7MHz) 「성서강해」 화요일 오전 5시 35분 ~ 6시
 극동방송(HLKX 1188KHz) 「생명은 빛으로」 금요일 오전 9시 ~ 9시30분
 대전극동방송(HLAD FM 93.3MHz) 「늘푸른 초장」 주일 오후 10시 ~ 10시 45분
 아세아방송(HLAZ 1566KHz) 「라디오 강단」 주일 오전 8시 30분 ~ 9시
 「새벽의 강단」 금요일 오전 4시 20분 ~ 4시 50분

제 11학기 목회자신학세미나 프로그램 · 강사 확정

급변하는 세계에 효과적 복음전과 모색코저

한국교회갱신연구원의 제 11학기 목회자신학세미나의 강사가 모두 확정되었다. 따라서 한국교회갱신연구원은 제 11학기를 맞을 본격적인 준비에 착수했다.

제 11학기 목회자 신학세미나의 주제는 “복음과 상황”이다.

변화하는 세계(A Changing World)라는 말은 오늘의 특징을 잘 나타내는 상징적인 표어와도 같이 되었다. 그 변하는 속도가 얼마나 강한지 ‘급변’이라는 말을 하지만 최근엔 ‘혁명적 변화’라는 말까지 생겼다. 변화의 정도는 가히 충격적일 뿐 아니라 그 범위가 지구촌 사회 전 영역에 걸쳐 일어나고 있다.

이렇게 변하는 상황에서 제 11학기 주제를 ‘복음과 상황’으로 정하고 “영원히 변치 않는 복음을 우리는 어떻게 이 세상에 선포할 것인가” 하는 문제를 심도있게 연구하려고 한다.

확정된 일정과 강의, 강사는 다음과 같다.

실시일	제 1 교시	제 2 교시
3. 24.	로마서강해 이종윤 목사 (서울교회)	한국적 상황과 기독교 나학진 (서울대)
3. 31.		북한의 상황과 한국교회 곽선희(소망교회)
4. 7.		사회적 급변과 신학 조종남(명지대)
4. 14.		복음전도와 상황 전호진(아신대)
4. 21.		성경해석과 설교 김중은(장신대)
4. 28.		복음과 문화 김성태(총신대)
5. 12.		기독교 신앙과 시민운동 김찬국(상지대)
5. 19.		신학교육의 현실과 제언 이종성(기독교학술원)
5. 26.		새벽기도와 교회 부흥 김삼환(명성교회)
6. 2.		통일조국의 시민의식과 기독교 김동길(전 연세대)

■ 제 11학기 목회자신학세미나 신청 접수 ■

- 제 11학기 신청서 교부 및 접수 / 1997년 2월 10일(월) ~ 3월 24일(월)
- 제출서류 / 본원 소정양식
- 등록금 / 한 학기(10주)에 만원
- 신청서 접수 및 수강 안내 / 한국교회갱신연구원
서초구 반포동 737-3 (☎ 517-7651 ~ 5 FAX. 512-1225)

서울주간기도

●주의 이름의 영광을 위하여●

1. 사순절기간동안 경건과 절제의 삶을 살 수 있도록
2. 교회학교의 겨울성경학교·수련회를 위해
3. 말씀 위에 굳게 서는 우리교회가 될 수 있도록
4. 제 11학기 목회자신학세미나를 위해
5. 민족복음화와 세계선교의 산실이 될 예배당 건축을 위해

■ 예배 및 집회

구 분	시 간
주일 예배	I 부 오전 9시
	II부 오전 11시
	III부 오후 2시
찬 양 예 배	주일 오후 5시
수요 예배	I 부 오전 11시
	II부 오후 7시
금요기도회	오후 9시
새벽기도회	매일 새벽 5시 30분

■ 교회위치

